

민천주보

제2855호

2024년 12월 1일 | 대림 제1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가족사진 <은행동 예수 성심 성당>, 2003년 설립

입당송 | 시편 25(24), 1-3 참조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1독서 | 예레 33, 14-16

회답송 | 시편 25(24), 4-5, 7, 8-9, 10과 14(◎ 1)

-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끌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제2독서 | 1테살 3, 12-4, 2

복음 환호송 | 시편 85(84), 8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 루카 21, 25-28, 34-36

영성체송 | 시편 85(84), 1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소리주보 QR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5)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난 2024년 5월 9일 칙서를 통해 ‘2025년 성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 25년, 정기 성년을 선포하고, 이 성년을 통해 모든 신자들이 전대사의 은총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체험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년은 교황께서 성 베드로 대성전 성문을 2024년 12월 24일에 열면서 시작되고, 2026년 1월 6일에 성문이 닫히면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교구의 모든 신자들이 우리 교구뿐 아니라 전 세계 각 교구의 주교좌 성당을 방문하고 순례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향하듯 ‘희망’을 체험하고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순례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로마 5,1-2)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희망의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신자들이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덕들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기를 권고하십니다. 로마서에서 언급하듯, 희망의 삶은 믿음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오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히브 11,1)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확신 안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희망은 사랑에서 비롯되며,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에서 샘솟는 사랑에 토대를 둡니다. 이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향주삼덕, 즉 신망애(信望愛) 삼덕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덕의 실천으로 우리 모두가 더욱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향주삼덕의 기초는 바로 믿음입니다. 특히 사랑 지극한 예수 성심께 대한 깊은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더욱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성심에서 나오는 자비를 체험한 이들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용기와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희망의 희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구 모든 신자들이 늘 실천해 왔던 성체조배의 삶을 생활화하도록 합시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야고 4,8)

이처럼 우리 모두가 먼저 성체 앞에 나아가 하느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성체의 신비와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신자들이 됩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며, 희망으로 이끌며, 사랑으로 감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사도 바오로는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로마 8,24-25)

보이는 가치, 현세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은 우리가 희망의 덕을 새롭게 생각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님도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는 회칙을 2007년에 반포하셨습니다. 이 회칙 안에서 교황님은 극단적 현실 중심주의,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근시안적 사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 현상을 이유로 지적하면서, 현재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많은 이들이 희망을 품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간은 더욱 자기만족에만 머물고, 세상은 계속해서 만족에 만족만을 추구하는 욕구의 장으로 변화되었음을 밝히십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더욱 극명하게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나오는 아쉬움과 슬픔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희망의 성년을 보내면서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는 희망의 전도사, 희망의 선포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희망을 선포하는 이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노력해야 할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 **신자 모두의 희년:** 성체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의 확신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거듭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희망찬 삶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줍시다.
- **청소년·청년들의 희년:** 젊은이들이 희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7년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면서, 젊은이들에 대한 교회와 교회 구성원 모두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원의를 깊이 헤아릴 수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학교 밖 청소년들과 위기 청년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 봅시다.
- **가정에서의 희년:**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가정 안에서부터 기도가 이루어지고, 가족 구성원 간의 화해와 용서, 이해와 포용 그리고 사랑과 화목의 성가정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 **본당 공동체에서의 희년:** 본당 내적으로는 신자 재교육으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면서, 냉담자, 행불자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전하며, 본당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이웃 종교에는 관용과 대화를 통해 희망을 선포하는 본당 공동체가 되어 봅시다.
- **교구에서의 희년:** 희망의 희년 여정을 시작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난민,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합시다. 아울러 연대의 마음으로 가난한 외국 교회를 위한 도움에도 함께 합시다.
- **지역사회를 위한 희년:** 지역사회 안에서 단순히 종교적 믿음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웃이 되어 봅시다.
- **평화를 위한 희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힘의 논리로 인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일치를 위한 우리 모두의 기도와 노력이 이루어지는 희년을 만들어 봅시다.

희망의 희년을 보내며, 교구 주보이신 ‘바다의 별 성모님’께 전구의 기도를 바칩니다. 삶의 폭풍우 한 가운데에서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시고, 희망의 지표를 밝혀 주십니다.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의 전구로 우리 교구의 모든 신자들이 기쁘고 희망찬 희년의 한 해, 은총의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정 신철

천주교 인천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싸라기에서 알곡으로!

누런 황금물결이 바람에 일렁인다. 봄부터 못자리에서 썩어 든 벼씨들이 누런 껍질 속에 탐스러운 알곡을 키워가고 있다. 풍요롭고, 평화롭고, 자유가 충만하다.

갑자기 황금벌판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요란한 엔진소리. 그 기계가 휩쓸고 간 자리에 벼들이 쓰러져간다. 벼를 베는 기계는 누렇게 익은 벼씨들을 사정없이 훑어 버리니 벼들이 맥없이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떨어져 나간 벼들은 방아 찹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 처참하게 짓이겨진다. 곧이어 껍질이 벗겨지고 흰 쌀을 드러낸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 가는 절망의 자리에서 방아 찹는 기계는 하얀 알곡들을 쏟아 낸다. 여름 내내 햇볕과 바람과 물 ... 자연이 빚어낸 작품이다. 기계 뒤편에서는 싸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벼가 익다가 만 불량한 알곡들이다. 알곡들은 곡간(穀間)에 떨어져 양식이 되고, 싸라기들은 돼지 밥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루카 21,25)

평화롭던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께서서는 추수를 시작하시기 위해 낫을 휘두르신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알곡이 짓이겨져 껍질을 벗듯,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하느님 앞에서 살아온 삶이 발가벗겨질 것이다. 이때 의인은 곳간(庫間)에 들어가게 되고, 악인은 사탄의 밥이 될 것이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누가 알곡이고 누가 싸라기인가?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물러진 사람”(루카 21,34)은 싸라기이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한 사람”(루카 21,37)은 알곡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그날’은 알곡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싸라기에게는 저주의 날이다.

그날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싸라기입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알곡입니다.

며칠 전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깨어 준비한 알곡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날입니다. 그들은 시험을 치르고 평화와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방탕한 생활을 하다 준비 없이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는 혹독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시험에 실패했더라도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 년간 깨어 준비하면 내년에는 알곡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내내 방탕하게 생활하다 싸라기의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불타는 지옥에는 재시험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합시다. 그러면 알곡이 되어 주님의 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희년이 시작되는 이 대림절에 저희들이 싸라기에서 알곡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손광배 도미니코 신부
간석2동 본당 주임

청소년세계시민교육 기초과정

● ‘청소년세계시민교육 기초과정’은 초등 4~6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하여 세계시민의식 형성 및 시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과정은 ‘환경 보호’, ‘인권과 다양성 존중’, ‘불평등 완화’ 등 14가지 세부 목표를 중심으로 회기별 학습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청소년들은 일상속에서 지속가능한 실천을 체득할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계시민이란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길 응원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까워서 도와주기는 힘들더라도 멀리서라도 불평등을 감소하자고 응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가 청소년 소감문 中



●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사장 이용권 베드로 총대리 신부)은 청소년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제이해 및 세계시민의식을 형성하고 주도적인 실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세계시민교육 실천과정

● 더불어 2025년 1월, 재단은 11명의 청소년들과 세계시민교육 실천과정으로 캄보디아 파견 및 국제교류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는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치를 나누기 위한 본 프로그램은 현지 청소년과 함께하는 교류활동 및 캄보디아 문화의 이해 등 단순한 체험활동을 넘어 청소년 각 개인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고 더불어 사는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치를 추구합니다.

기부물품 모집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는 캄보디아 현지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 목적으로 물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모집기간 12/13(금)까지

물품종류 어린이 장난감, 악기, 여름/가을 의류, 문구류 등(새제품 혹은 깨끗한 중고물품)

직접 전달 혹은 택배 발송

우)22573 인천 동구 박문로1 가톨릭청소년센터 4층

알려드립니다!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맑은청소년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12/27(금) 17:00까지 제출분 유효
신청자격 만 9~24세 청소년
지원금액 1인-최대 3백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홈페이지 [자료실] 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 이메일 제출(youth@yism.or.kr)



알려드립니다!



인천교구 YOUTH 축제

“제31회 바다의 별 축제”

일시 2025/2/9(주일)

장소 인천교구청

모집 15~35세의 청소년, 청년, 교리교사 봉사자
문의 카카오톡 채널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이 주에 기억해야 할 선종사제



현상옥 스테파노 2022.12.1 선종

교구청

김병상 아카데미

"뉴라이트 친일파의 전면 부상과 한국사회"

일시: 12/2 18:30 주안5동 성당

강사: 전우용 역사학자

문의: 032-765-6970 정평위

청년 대림피정

일시: 12/14(토)~15(주일)

장소: 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

대상: 교구 내 만 19~45세 청년

참가비: 10만원

문의: 031-314-8839

제73차 창세기 연수

일시: 25/1/18(주일)과 24(금)~26(주일)

[주간 1일과 2박 3일]

장소: 청년공간 엘피스, 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

접수: 12/28(토)까지

문의: 031-314-8839

교육 | 미사

성령새신봉사회 대림기도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14)

일시: 12/1~22 19:30 (21:30 미사)

장소: 답동 성당 내 답동문화관 3층

온라인 미사지향: 신협 131-019-112859[성령새신]

문의: 032-761-6301

간석2동 성령기도회 대림피정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님" (루카 22,20)

일시: 12/7(토) 9:00~17:00 (점심-판매)

강사: 김대우 모이세 신부,

김영준 프란치스코 신부

주관: 010-8880-6952 간석2동 성령기도회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25년 1월 개강 [각 6~10주]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중세): 이진현 신부

·비블리오드라마(성경드라마) 피정: 김영근 신부

·월요무료피정(12/23 개강): 이근상 신부

·고대 그리스의 시간과 그리스도교 신학: 김민철 신부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예수회-수도생활 체험학교(나이 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프로그램

일시: 12/9~16 강원도 홍천

비용: 1주-75만원, 2주-150만원

대상: 60세 이상

문의: 010-7451-9707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대림1일 피정: 12/5(목), 19(목)

·영신수련 2박 3일 피정: 12/20~22(연말 피정)

장소: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1, 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문의: 010-6890-7223

지혜의 샘 12월 피정 프로그램

대림 피정

일시: 12/11 지혜의 샘 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강사: 이용권 총대리 신부, 한영임 회장

문의: 010-3248-9705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12/21(토)~22(주일), 25/2/14(금)~15(토)

[3박 4일] 12/5(목)~8(주일)

[4박 5일] 25/2/17(월)~21(금)

[8박 9일] 12/26(목)~25/1/3(금), 6(월)~14(화)

[40일] 12/14(토)~25/1/22(수)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한라산 눈꽃산행 포함: 25/1/17~19, 23~25,

25/2/8~10, 14~16, 22~24

연말연시: 12/30~25/1/2(한라산 눈꽃산행)

성지순례(추자도 포함): 25/3/1~4, 9~12

문의: 064-756-6009,

02-773-1463(제주자연피정)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 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한라산 눈꽃산행: 25/1/11~13, 16~18, 20~22,

25/1/24~26, 2/7~9, 15~17(제주T/S), 21~23

연말연시(한라산, 해님이, 해돋이): 12/29~25/1/1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토마스 머튼 영성 배우기 피정

박재찬 신부의 머튼 영성 강의 [총 12회]

일시: 25년 매월 첫째(토) 10:00~16:00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서울 분원 피정의 집(장충동)

문의: 010-8719-8608 (문자 문의)

기도 피정-전교가르멜 수녀회

기도를 배우다 (선착순 20명, 5만원)

일시: 25/1/4(토) 10:00~16:00

장소: 계산동 전교가르멜 수녀원

문의: 010-2037-9262

12월 전례꽃꽂이 월례미사 및 교육

일시: 12/5(목) 14:00

장소: 박순집 베드로 홀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회 미사

일시: 12/6(금), 25/1/3(금)

장소: 주안1동 지하 소성당

문의: 031-884-0533

청연 성당 후원자, 봉사자의 날

일시: 12/7(토) 15:00

다과 후 강의, 찬양, 미사

(음악치유팀 SOL과 함께)

장소: 청연 성당

문의: 032-832-2361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운행: 13:30 장기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박원희 사라 그림전시회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친구들

일시: 12/9(월)~18(수) 10:00~18:00

장소: 인천 바오로딸서원 갤러리

문의: 032-765-5830

모집 | 일반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성지 성전에 지향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념관 관리장 모집

자격: 자격증 소지자 우선(전기, 소방, 가스)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본당사제 추천서
문의: 032-765-6916

서운동 성당 사무장, 관리장 모집

·사무장: 문서관리, 교회 행정업무 및 오피스 가능자
·관리장: 소방, 가스안전, 전기기술 경력자 우대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사제 추천서
접수: 사무실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seoun@caincheon.or.kr
문의: 032-553-6573 서운동 성당 사무실

부개2동 성당 사무장 모집

조건: 한글, 엑셀 가능자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본당사제 추천서
문의: 032-505-2048 사무실
bugae2@caincheon.or.kr

군중후원회 성탄 선물 전달

모든 군인들에게 성탄 선물 전달(장교 포함)
마감: 12/9(월)
문의: 032-765-6920 군중후원회

부천성모병원 전례봉사자 모집

전례, 독서, 반주 봉사자
대상: 20~68세 남·여
문의: 032-340-7335

연도봉사회 회원 모집

하느님의 사랑 안에 기도 및 연도
봉사하실 교우 모집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교구 서구지구 연령회
문의: 010-5130-687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2024년 정기 세미나

가정과 생명, 그리고 AI
일시: 12/7(토) 14:00 수원교구청 2층 대강당
주최: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후원: 수원교구 복음화국(가정 담당),
사회복음화국(생명위원회), 흥보국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과정: 교리학과(주간-주 5일), 종교학과(야간-주 4일)
2년 과정,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접수: 25/1/17(금)까지
문의: 02-747-8501, ci.catholic.ac.kr

농민 자녀를 둔 부모 모임

일시: 12/7(토) 13:00 청연 성당 1층 강당
문의: 010-2518-2046

포센티 글방(비대면(Zoom) 모임)-예수고난회

하느님을 향한 책임감과 글쓰기
일시: 매달 2, 4주(수) 20:00~22:00
대상: 40대 초반 이하의 미혼 남·녀
문의: 010-9503-1127

선교아카데미 14기 교육생 모집

일시: 25/3/6~8/28 매주(목)
장소: 한국외방선교회 본부(서울 성북동)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비용: 80만원(식대 포함)
문의: 02-3673-2528 한국외방선교회

예수성심 인천천교회(재속)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남·녀 교우
문의: 010-8752-9566

순례 | 기타**이탈리아 일주**

일시: 25/5/14~25 [12일] 대한항공
문의: 010-3712-8119

마카오·홍콩 성지순례

25/1/30~2/3 [5일]
문의: 010-8705-0319 최금옥 최형베드로

해외 성지순례

25/2/19 남인도 성지순례 [13일] 595만원
25/3/10 이집트 완벽일주 순례 [13일] 625만원
25/5/25 산티아고 도보순례 [12일] 475만원
25/6/9 서유럽 성모발현지 순례 [12일] 545만원
문의: 02-732-4578, www.bonatour.co.kr

25년 이탈리아 순례, 작은형제회

78차: 25/3/19~31 550만원
79차: 25/6/10~22 560만원
이탈리아 로마, 아씨시 외 프란치스칸 성지
작은형제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문의: 010-9704-9495, www.terrasanta.kr

해외 성지순례

25/2/14, 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485만원
25/2/12 성모발현지 [12일](대한항공) 495만원
25/2/19 대한항공 이탈리아 일주 [9일] 419만원
25/2/24, 3/3 터키, 그리스 [11일] 초특가 385만원
25/3/9 포르투갈 일주 [9일] 299만원
25/4/22 이탈리아 일주 [11일] 415만원
문의: 02-778-8565

국내·외 성지순례

12/14~15 마산교구: 윤봉문 성지 외 5곳
12/16~25 미 서부 일주
25/1/8(수)~9(목), 25/1/25(토)~26(주일)
부산교구 김범우 성지 외 7곳
25/2/24(월)~3/6(목) 대희년 이탈리아 성지순례
문의: 010-9200-3532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피점,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문의: 041-934-7758

<https://yonaresort.modoo.at/>

**이주민들을 위한 쌀·김치 나눔에 동참해 주세요!**

교구 이주사목부에서는 12월 이주민들을 위한 모금을 실시하여 12월 15일(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에 각 가정에 우리농 쌀 4kg과 김치 3kg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교구 관할 지역의 이주민 공동체인 필리핀(답동, 오정동), 베트남, 방글라데시, 해양 어선원, 품놀이터, 중남미(역곡 끈솔라파) 공동체와 별사랑이주민센터, 글라렛이주민센터, 김포이웃살이, 까리파사이주민문화센터, 국경없는친구들 등 1,000가정에 나눔 계획이오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웃인 이주민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사목부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인천교구]
021-195818-13-501

1가정-3만 5천원
우리농 쌀 4kg
생생한 김치 3kg

문의

032-764-1094
교구 이주사목부

